



■ 제1회 운동회 5월 28일 패사디나 브룩사이드 공원에서 열린 제1회 주안에 운동회에서 3개 채플 가족들이 있는 힘을 다해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특집 7, 8, 9, 10면)

주안에
News InChrist

주 . 안 . 에 . 교 . 회 . 뉴 . 스 . 레 . 터 .

 InChrist CommunityChurch



5
May. 2016
Vol.4 No.5

- 교회뉴스 • 채플소식
- 제1회 주안에 운동회
- 주안에 만남
- 교육부 / 간증 / 칼럼



■ 주안에만남(LA채플)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예배의 감동, 받은 은혜 간증

지난 5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L.A. Chapel 친교관에서는 새로오신 성도님들을 위하여 마련된 첫번째 주안에만남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코람데오 찬양팀의 인도로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 시작이된 만남의 자리는 이어서 최혁 담임목사님의 기도, 사역자들 소개, 그리고 참가하신 성도님들의 개성있고 재치있는 자기소개가 더해지면서 조금은 낯설고 어색했던 분위기가 부드럽고 친근하게 무르익어 갔습니다. 참가하신 성도님들의 대부분은 최혁 목사님의 말씀 C.D. 나 부흥회를 통한 목사님의 말씀에 이끌리어 주안에교회 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는 고백과 함께 앞으로의 믿음생활을 새롭게 다짐을 하시기도 하면서 귀한시간을 경험하실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위치한 한인타운을 비롯해서, 한시간이상 떨어진 Sand Canyon 에서도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셔서 주일을 거르지 않고 참석하신다는 열정을 나누어 주기도 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서는 주안에교회의 목회비전 및 목회철학 그리고 목회방향을 소개하시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에 집중하는 교회" 를 강조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제대로 받기위한 마중물의 역할을 감당하는 "물 한바가지" 를 준비해야함을 거듭 강조 하셨습니다.

또한 찬양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소통을, 그리고 특별히 구제와 선교에 대해서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이웃을 돌봄으로부터 밸런스를 맞추어가야함을 중점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다음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로서 교육부는 물론이고 평신도 사역 훈련원의 단계별 훈련과정의 소개를 마지막으로 공식행사는 마무리되고, 이어서 자유로운 질문과 새가족국에서 정성껏 마련한 맛있는 간식타임을 즐기며 담임목사님과 사진촬영에 임하실 때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마주하면서, 앞으로 하나님나라를 향한 주안에교회에서의 섬김과 사역이, 동역의 첫발을 내딛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동일한 설렘으로 자리 잡아 갈 수 있기를 기도드리며, 그 길이 오래도록 함께가는 길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 오희경 기자 |

2016

VBS

Vacation Bible School
Lock-in

VALLEY&LA

June 17-18

Valley Chapel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FULLERTON

June 24-25

Fullerton Chapel (117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2)

WE LIGHT UP THE WORLD!

가르치는 자의 사명과 열정... 소그룹 토론·체험담 나뉜

■ 교사·리더 컨벤션 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달, 계절의 여왕 5월을 시작하면서 주안예교회 교육부에서는 다른 어느 때보다 바쁘게 움직였다.

먼저 5월이 되기 바로 앞 금-토요일(4/29-30일)에는 파사디나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던 2016 CMTA Impact Convention "Torches to Triumph" 라는 주제로 열린 이 곳을 교육부 리더, 교사들이 참석해 양적으로 많이 배우고 영적으로도 은혜받고, 도전받는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양일동안 아침부터 각 시간별로 짜여진 강의실에서 다른 소주제를 각자가 원하는데로 선택해서 들을 수 있었는데 그 곳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서 느낀 점은 하나같이 모두가 교회에서 맡은 일에 주님이 주시는 사명과 열정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다. 강의 도중 소그룹으로 나누어져 토론하는 시간에 여러 곳에서 모인 교회 리더, 주일 학교 교사, 그 분들이 헌신하는 동안 가졌던 서로의 좋은 경험과 은혜, 아이디어, 또한 감

사한 일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내년엔 3/31-4/1 에 열릴 것이라고 하니 또 한번의 은혜와 정보, 아이디어를 기대해 본다.
| 박희정 기자 |

지난해 11월 뿌린 씨앗, 아름다운 찬양의 첫 열매

■ 기악합주 예배

작년 11월 작은 씨앗 하나를 뿌렸습니다.

그 작은 씨앗은 조금씩 조금씩 싹을 틔워 봄의 끝자락 오월에 주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꽃다발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맑고 고운 아이들이 기쁨과 감사, 사랑과 소망, 꿈과 희망을 담은 꽃들을 모아 만든 바로 찬양의 꽃다발입니다.

찬양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복음의 씨앗이 되기를 바라면서 주안예교회 초등부 기악 합주반을 만들었습니다. 악기를 한번도 접해보지 않은 아이들이 쉽게 다룰 수 있는 악기, 또한 이미 악기를 다루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합주의 기회를 줌으로써 하나님이 아이들 각자에게 주신 소질과 개성을 찾고 또 계발할 기회를 만들어 주고자 하는 작은 소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의 절기 예배 활동에 참여하고 더 나아가 어린이 선교 음 악활동과 대외적인 활동에서도 아이들이 쓰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와 자



Clara Song(교사)

신감을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기회 또한 만들어 주고 싶은 소망도 있습니다. 기악 합주반이 만들어진 후 추수감사절, 성탄절, 부활절 어린이 예배에서 발표의 기회를 가지며 찬



양의 기쁨을 맛보고 있고, 여러 악기가 함께 어우러져 합주할 때에 아이들이 또 다른 감동과 은혜를 경험하고 있으며 연습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또한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번 7월 졸업식 행사를 앞두고 아이들이 찬양 합주곡을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찬양 합주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은 주안에 아이들이 오너라 주님을 노래하자. 기쁨으로 찬양의 꽃다발을 올려드리자.

* 기악 합주반 대상 및 연습 시간

- 대상: Kinder~5th Grade(유,초등부)

- 시간: 매주 주일 1부 예배 시간
(아침 8:45-10:00)

- 장소: 주안예교회 KIDZ ROOM

* 기악 합주반 악기 구성

학년	악기 구분	악기 종류
Kinder-2nd	리듬악기	캐스터네츠, 트라이앵글, 탬버린, 에그셰이커, 리듬스틱, 심벌즈큰북(Bass Drum), 작은북(Snare Drum)
3rd-5th	가락악기	피아노, 키보드, 리코더, 멜로디언, 실로폰, 첼로, 바이올린 등



Beginning in Christ

I'm ecstatic that our church's English Ministry finally started! I remember when Pastor Han approached me about English Ministry. Honestly, at that time, I did not have a heart to serve. It was a couple of months I changed churches and I was tired, I liked my small group with KM Coram Deo, I enjoyed the peace after so many years of weariness and search for something I was looking for. However, I still listened carefully because I knew I would eventually end up serving. I prayed about English Ministry after that day and asked and told God that if it was His will for me to be there, then He would give me the heart to love and serve others. It didn't come right away and I knew it was going to take time, but God opened my heart and eyes to see the needs and have a loving heart towards this ministry and His children.

I knew all the ICY leaders since I served with them as I transitioned into this church and I loved serving with them. However, coming into Hesed, I knew I wouldn't be serving next to them, but serving them. Our EM members, many who are our ICY leaders, are so dedicated, loving, kind, funny, hardworking, and selfless. They put their students first and they will go out of their way to attend and love our ICY students and the church.



Jennifer Oh

Because they poured out all of their hearts, it was natural for them to feel tired and experience hardships as they were serving. Serving should be some-

thing we all enjoy, something we all want to do, not because we feel obligated or we need to serve. But our EM members' dedication and heart for our ICY students was amazing. They needed to be filled; they needed to feel loved as much as our ICY students and I am more than happy to serve my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When we had our first small group, it was so nice to actually sit down and share what was going on in our lives and not worry about time or what we need to get done for ICY. Whenever we sat down together as a group, it was about ICY and our students. We did have some time to share about ourselves briefly, but sharing in depth about what is going on with our lives, what God is trying to teach us, where God is taking us, and where we are spiritually was SO GOOD. I really enjoyed everyone's company and what they had to share about what was going on in their lives. Sharing our prayer requests also allowed us to be honest, more vulnerable, and just open our hearts towards one another.

A couple of weeks ago, Coram Deo Young Adult's ministry joined us for worship and I absolutely loved it! I loved how we came together as one body of Christ and even though we didn't know each other and despite the language and culture barrier, we were able to get along and introduce ourselves, and become a little bit more familiar with one another. It may have been a challenge for some people because everything was in English but I appreciate their effort and support. I think we had a great



time playing games and eating afterwards. I would love to see KM and EM come together more often not only in church occasions but also outside of church.

I expect so much from God for this ministry. I know God has been watching how dedicated and selfless our EM members were as they served and pulled through all this time. Our Hesed English Ministry will be a ministry that really glorifies God, be rooted in His word, overflowing with His love and grace, and form a community where genuine God's love and word is present. I really appreciate our Pastors, Missionary Lim, and Deacons for working so hard and supporting our EM members in any way they can. Starting this ministry, many people are showing sincere love towards our EM members. Having a feeling of being part of a church and a community is so important in our walk with God and I am thrilled that our EM members have a place to go to, a community to share their lives with. I would like to ask our InChrist Community Church to support our English Ministry with prayer and love. I want our whole church to be excited and support Hesed English Ministry. Even though our language, our culture, and our ways may be different, we are still one church and one body of Christ. Just like our church name "In Christ," we want to experience the whole church becoming one, in Christ.

부모님을 기쁘게 사랑의 선물... VBS 채플별 준비 분주

■ 교육부 행사 • 캘린더

5월 첫째 주일에 있었던 어린이날 예배 (좋은 아이템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달란트 시장과 간단한 다과와 프루츠 킵)를 비롯하여 둘째 주엔 Mother's Day 주일로 전날 유스 (Youth)에서는 카네이션 꽃을 준비해 교회 어머니 아버지 되시는 모든 분들 가슴에 그들의 예쁘고 싱그러운 미소로 함께 달아 드렸다.

한편 아이들 방(IC JOY & KIDZ)에서는 어머니께 드릴 팔찌, 브로치를 만드느라 그 고사리 손들은 분주히, 즐거운 마음으로 익숙치 않은 손놀림으로 바쁜 주말 하루를 보냈다.

또한 매달 둘째 주에 있는 정기 교육부 전체 학부모 교사 스텝 모임을 먼저 기도로 시작하고 6월에 있을 VBS 에 관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다.

참고로 2016년도 주안예교회 VBS는 벨리와 엘레이 채플이 6/17-18일(금-토), 플러튼 채플은 6/24-25일(금-토) 양일동안 두 채플에서



Lock-in 으로 "세상의 빛이 되자(We light up the world)" 라는 메인 주제를 가지고 Sleepover를 계획하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같이 거하며 먹고 마시며 서로 사랑하고 돌봐주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영적으로 같이 성장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이번 VBS를 통해서 기대해 보면

서 등록은 5/22일부터 IC KIZD ROOM 앞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이나 도네이션 등에 특별한 마음이 있는 분들은 각 채플 교육부 전도사님께 문의 바란다. (이명재 전도사 213-675-7816, 김유진 전도사 213-864-6348)

| 박희정 기자 |



■ 어버이주일

탕자의 비유 시리즈 통해 다시 깨달은 부모님 사랑

지난 5월 8일(주일)은 우리 주안예교회에서 어버이 주일로 지켰다. 세상이 점점 핵가족화 되어가고, 또 요즘 세상에서는 어버이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많이 식어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최혁 담임목사는 누가복음 15:11-24 말씀을 통해, "기다리시는 아버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 해 주셨다. 추억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이어 어머니날에 꼭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한다. 자신의 유익과 향락을 위해 부모를 버리고 집을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을, 탕자의 비유 두 번째 시간을 통해 잘 알 수 있게 된 은혜의 시간이었다.

지금까지 알았던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는

막연히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줄만 알았는데, 율법의 심판 앞에 패역한 아들이 돌로 쳐 죽임 당함을 막기 위해 율법과 심판의 속도보다 먼저 달려가는 아버지... 그리고 과거의 죄에 대해 문제 삼지 않으시는 인애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뿐만 아니라 옷과 반지, 신발을 내려주며 신분과 권위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맘 속 깊이 깨닫고, 이 은혜의 말씀이 어머니날에, 하나님을 대신한 부모님의 사랑도 잊을 수 없는 은혜임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우리 주안예교회에서는 어버이주일을 맞아 65세 이상 된 어른들에게, 정성어린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고 중고등부와 청년부에서 손수 만든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

아드렸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무엇보다 믿음에서 본을 보여야 하겠지만, 작은 일부터 행함으로 후손들에게도 본을 보여야 하겠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가까이 계시든 멀리 계시든 부모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하고 찾아뵐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본다. 지금은 부모님이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아주 멀리 떨어져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부모님을 그리워할 수 있고 조금만 노력하면 찾아뵐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사치로 보이지 않을까? 오늘은 한번쯤 사치스러워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 오병순 기자 |

화끈한 승부, 따뜻한 격려 '완전 감동'

■ 제1회 주안에 운동회

5월 28일 Pasadena Brookside Park 에서 제 1회 주안에운동회가 있었다. 대회 시작은 9시였지만 진행팀은 새벽예배 후 바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운동회는 거의 1년 가까이 준비했어야 했던 아픈 손가락같은 행사였다. 몇번의 연기와 취소로 준비위원회는 실망도 하고 좌절감도 느꼈지만 우여곡절 끝에 날씨가 정해지자 그 간의 어려움이나 망설임이 있었나 싶게 일사 분란하게 움직였다.

날씨가 정해지고 게임과 음식 등 프로그램을 위한 모임은 한달 전후로 능동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맡은바 최선을 다하며 완성시켜 갔다.

몇시간 혹은 몇주를 준비한 성도들은 반가움으로, 교회 행사니 동참하자는 마음으로 계획했던 일을 미루거나 취소하면서 시간에 맞춰 찾아온 성도들은 감사함으로 하나가 되어갔다.

셋엽하느라 몸을 많이 움직여야 하는 오전에는 구름이 선선한 날씨를 만들어 주었고 오후에는 바람부는 화창한 날씨가 상쾌한 기분을 유지하게 하나님은 멋진 날씨로 함께 해주셨다.

최혁 목사님의 기적같은 짧은 설교와 세 채 풀이 한 곳에 모여 사진도 찍고 다이어트를 잊을 수 밖에 없는 그 맛있는 각양각색의 음식은 준비한 수고를 생각하면 맛없다고 하는 게 이상할 지경이었다.

축구, 족구, 고무신 멀리던지기, 신발 던져 박터트리기, 피구, 다트게임, 물풍선 던지기 사탕먹기 등 한 게임이 끝나면 어디선가 진행팀이 나타나 한편에 뒷정리를 하여 흐름을 끊지 않고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게임을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이기면 이겨서 지면 져기에 격려하고 위로하며 살짝 굳어있던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결국 하이파이브를 하며 박장대소를 하게 되었다.

만약 이 운동회가 각기 다른 세 교회가 모였던 것이라면 어땠을까. 말로만 우리는 하나라 하는 건 아니었을까 했던 아주 작은 염려를 훌훌 날려버리고 우리는 하나라는 걸 재확인할 수 있었다.

여러 게임 중 줄다리기는 예상치 못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박진감 넘쳤으나 블루팀의 월등한 파워에 세트 모두 두손 번쩍 들고 말았다. 처음엔 등떠밀려 나가 어색하게 박자를 맞추던 라인댄스는 한국 두곡 진행되면서 절반 이상의 인원이 동참하여 처음엔 간신히 발짝을 떼던 것이 어느 순간 어깨를 들썩이



터져라 대박



첫 골은 내꺼야...



김치전보다 붉은 권사님 얼굴

며 리듬을 땀다.

또한 웬지 모르게 건강을 위해 기도해야 할 의무감을 느끼게 했던 담임목사님이 번개맨이었다는걸 확인하게 한 계주는 세번째 주자가 나섰을 때 간신히 순위가 바뀌었을 정도로 최혁목사님이 빛의 속도로 치고 나갔고, 선수층이 너무 어리다고 제지당했던 그린팀은 경기 중반 한바퀴를 뒤쳐지는 의외의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다. 먼저된 자가 나중된다고 했던

가 결국 최목사님이 절반가량 벌려놓았던 격차가 무색하게 노란팀이 끝까지 하는 등 스포츠는 역시 각본없는 드라마였다.

운동회 내내 입을 즐겁게 했던 맛자랑은 블루팀의 타코가, 시작부터 끝까지 복을 치며 흥을 끌어올리던 레드팀에게 응원상이 돌아갔다. 운동회 전체 우승 역시 단합이 돋보였던 호산나, 블루팀에게 돌아갔다. <10면에 계속>

| 채은영 기자 |



젓 먹던 힘까지 다해...

모였노라...
뛰었노라...
하나가 되었노라



"운동회를 안전하게"



'No Gravity'



Reds Go!

'We Are One In Christ!' (김다슬 기자)



서먹했던
얼굴들
웃음으로 넘쳤다



준비하시고...



날아라 고무신



'호떡 vs. 붕어빵'



"날 좀 보이소"

3개 채플 모든 연령대 이렇게 한마음 되다니...



■ 운동회를 마치고

▲ 김용수 장로- 오늘 주안에운동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모든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특히 시설부에서 밤 늦게까지 헌신적으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양국민 전도사-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얼굴들과 처음 만나는 어색함 속에도 잠깐의 인사를 나눴을 뿐인데 주안에 하나라는 울타리로 순식간에 한마음이 될 수 있는 기분좋은 날이었습니다. 땀흘리며 웃으며, 무엇보다 함께 응원하는 즐거움이 세 채플을 한팀으로 묶어줄 수 있는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이런 시간



들을 통해 예수님을 머리삼고 우리 각자가 서로 다른 지체가 되어 하나되는 기쁨을 누리는 주안에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조혜리(코람데오 한어청년부)- 주안에교회가 생기고 처음 하는 운동회였는데 운동회 시작 전 세 채플이 같이 모여 잠깐이나마 같이 예배를 드린게 너무 좋았다. 이런 기회가 흔치 않으니까.. 그리고 교구마다 다양한 음식을 준비해 주셔서 주안에교회 가족들이 운동회를 더 즐길 수 있었던 것 같다. 모든 연령대가 같이 게임을 하며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좋았다.

▲ 박창진 집사- 주안에교회의 첫번째 운동회를 위해 준비한 먹거리 장터는 총 10개의 부스에 수많은 양질의 음식들로 어느 축제의 먹거리 장터보다 더 높은 수준의 맛과 질로 교인들의 행복한 하루를 선물했다.
"오늘은 먹고 내일은 다이어트" 라고 내놓은 캐치프레이즈처럼 마냥 먹고 또 먹어도 또 넘치는 음식의 양과, 그 옛날 학창시절을 떠올리게하는 봉어빵 호떡 떡볶이 핫도그 빙수 등은 먹는 즐거움을 더해 주었다.
운동과 먹거리로 즐거웠던 하루, 이 모든 즐거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7면서 계속〉 운동회를 지켜보는 내내 연합이라는게 이렇게 중요했구나 생각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아니거나 내가 최고라고 자랑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함께 일구어낸 성과이기에 너의 초라함을 덮어주고 나의 교만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혼자 뛰고 달려 승전가를 울리는 것보다 함께 했기에 그 기쁨이 두배 세배가 되고 혼자한 패배가 아니기에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대신 서로를 안아주고 품어주며 위로와 격려를 주고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엄청난 물량과 수많은 성도들의 헌신이 필요한 일이기에 우리가 얼마나 자주 이런 큰 행사를 치를 수 있을런지 짐작할 수 없지만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친 주안에운동회는 하루 하루 지치기는 매일반인 식상한 일상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어주었고 주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 하나임을 깨닫게 해준 훌륭한 하루였음은 분명해 보인다.

오늘 우리가 함께 했음에 감사하며 맑고 화창한 날씨와 행복한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상치 못했던 기쁨

처음 운동회 광고가 나올 때 9시부터 5시라고 해서 머리 속에 학교에서 하던 체력장이나 극기 훈련을 떠올리며 좀 오버스럽다고 내심 걱정이 됐었다.

하지만 당일 공원에 들어서며 어디서든 구해오신건지 만국기며 솜사탕기계에 장터를 연상시키는 음식들의 긴 줄이 늘어선 광경을 둘러보며 아.. 초등학교 때 그 '운동회'였구나! 하며 놀라움과 안도의 미소가 번져졌다.

보나마나 미친듯이 뛰어서 어디 다치거나 녹초가 돼서 돌아가겠지 하고 더 이상 20대가 아니니 꼭 몸을 사리겠노라고 운동회로 향하는 길에 비장한 다짐까지 한 나는, 남녀노소가 모두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순서순서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웃으며 편안히 즐기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돕지도 못한 주제에 왜 이렇게 길게 하나 하며 걱정하던 내 경솔함을 반성했다.

세 군데 채플이 모이기 쉽지않아 낮은 얼굴들이 많았지만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 되고 남녀노소 모두 한 마음으로, 세상에서 흔하디 흔한 유행가 한 소절, 술 한잔 없이 주님안에서 얼마나 즐겁게 놀고 뛰며 즐길 수 있는가를 확실히 증명해 준 하루여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졌다. 짧은 글을 통해 여러 모양으로 준비하느라 애쓰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이팔청춘 화이팅! 주안에교회 화이팅!

박익준(코람데오 한어청년부)

주안에일꾼을 공부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일꾼 되리라 다짐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새삼 와 닿는다. 엇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끝이다. 인생의 여정도 임종이 다가오면 이렇게 느껴지리라. 그때 가서 후회 말고 열심히 신앙 생활하라고 주님이 주신 나의 기도 응답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그때뿐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또다시 나태해진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며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열심히 텔레파시를 보내신다.

주안에일꾼을 시작한다는 소식을 들었을때 이미 정원이 초과해서 수강을 들을 수 없다는 소식에 조금은 아쉬웠는데 며칠 후 한 크라스를 더 모집한다는 소식에 제일 먼저 신청을 했다. 오래 교회생활을 했지만 뭐 하나 제대로 된 성경 지식이나 체계적인 성경 배움도 없이 하찮게 교회 다니는 연륜에 힘 입어 구역장이란 타이틀로 구역 식구를 인도하는 한낱 불성실한 교인에 불과했다.

공부가 조금은 두려웠지만 주일꾼 공부를 시작하니 첫날부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가 나왔다. 교재도 좋고 시간과 공간, 그리고 장로님께서도 열심히 가르치시며 분위기도 좋았다. 이제 나의 노력만 남았을 뿐이다. 열심히 배워서 구역 식구들에게 이렇게 좋은 복음의 소식을 공유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가치관의 차그만한 차이라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나중은 천국의 열쇠를 가지느냐 아니면 멸망의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느냐 하는 인생의 최고의 갈림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땅의 삶이 어떤 사람들은 지옥이라 느낄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천국으로 느끼며 열심히 말씀 속에서 거하려고 발버둥치는 사람, 사랑의 복음을 가슴에만 느끼지 않고 이웃에게 전하는 행위가 이 땅에서 천국화를 추구하는 아름다운 모습이다. 성도는 성도다워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위에 굳건히 서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오늘부터 다시 내가 작정한 태신자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나는 두번의 주안에말씀 성경 통독 크라스를 통해 성경을 읽었지만 읽었다는 자만심 뿐 머리에 남은건 별로 없다. 그러나 일꾼에서 배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네가지의 적용 방법인 관찰, 해석, 적용 그리고 비교를 생각하면서 읽음으로 많은 도움을 얻고 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잘 자랄 수 있도록 마음의 밭을 부단한 노력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작로의 밭을 옥도로 귀경하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곡식은 심을 때, 보살필 때 또한 추수할 때가 있다. 우리 주안에교회하는 심을 때를 갓 지난 어린 새싹의 교회다. 물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계시지만 우리들이 해야할 일들 즉 각자의 사명이 있다. 각 성도마다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열릴 수 있도록 열심히 가꾸며 잡초를 제거하고 정성껏 보살핌을 주는 농부가 주안에일꾼을 마친 우리들의 몫이다. 마냥 하늘의 비만 의지하는 천수답의 농부가 될 것이 아니라 물이 없으면 수로를 만들어 물고에 물을 끌어올 수 있는 희생과 사명감이 필요하다.

앞으로의 나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며 또 어떤 결단이 필요한가를 묵상해 왔다. 주안에일꾼에서 요구한 것은 삶의 변화이다. 일꾼은 머슴이다. 머슴의 사명은 순종이다. 살아 있지만 자기의 주장은 거의 없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찾아서 또는 요구하는 대로 순순수복하는 것이다.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즉 신앙인으로서 변화된 삶을 요구하는 것이 주님이 나에게 바라는 궁극적인 목표일 것이다. 예수의 향기가 나는 성도, 바라볼수록 닮고싶은 성도, 모두를 어우르는 성도가 주안에일꾼이 아닐까?"

끝으로 여태껏 그래왔듯이 참 열심으로 봉사하시는 평사원의 모든 성도님께 감사드리며 열정적으로 지도하신 이방길 장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찬국 집사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6주면 끝나던 풍습과 달리 주일꾼은 10주란 말에 처음엔 걱정이 많이 앞섰는데 막상 시작하고 나니 언제 다 지나갔나 싶게 재미와 보람이 많이 남는 공부였습니다.

늘 온유한 분위기를 만드는 인도자 이방길 장로님 덕분에 더욱 마음 편히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세퍼드라이프 제 1권 책이 두툼해서 겁부터 났었지만 공부하는 내내 다음 단원에서는 뭘 배울지 기대를 갖게하는 좋은 교재였습니다. 같이 공부했던 주일꾼 주일반 식구들이 모두 합심하여 화기에애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고 다들 반짝거리는 눈망울로 공부에 임해 모처럼 오랜만에 학창시절로 돌아간 듯한 착각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을 꼽으라면 공부하는 내내 나와 의 갈등속에 소감문과의 전쟁을 치렀던 것 같습니다. 매주 써내야하는 소감문은 쓸 때마다 나를 힘들게 했고 형식적인 소감문이 아닌 진솔한 마음으로 써야 했기에 나를 오픈하는 것이 참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차츰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은 나의 역경과 시련까지도 들추어 내서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시는 힘들었지만 이 자리에 서서 돌아보니 이 모든 여정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었으며 그렇게 나를 부서뜨리지 않고는 도저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수 없는 예전의 저의 모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잃어버린 한 어린양을 향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추적이 시작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말로 해서 듣지 않을 때는 매를 들어서라도 기어코 주님 품으로 파고들게 만드셨던 하나님의 놀랍고도 적극적인 사랑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자연과 국가와 모든 사탄까지도 주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주권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악한 자도 사용하셔서 주의 계획을, 말씀을 정확하게 지키시는 약속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나의 부족한 환경과 현실앞에서 세상이 주는 역경에 굴복하지 않고 내 안에 진정한 평안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게 신기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주일꾼을 마치면서 좀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임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합니다. 2권을 시작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성장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주님앞에 앞드려 기도하는 마음과 자세로 임하고 싶습니다. 주일꾼 1권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저에게 순종의 마음과 10주동안의 환경까지도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정유정 집사

주안에일꾼을 공부하며...

공부하는 내내 행복감



저는 그동안 수없이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순간 은혜를 받고 또 회개도 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잘 믿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안에 일꾼을 통해 예수님의 유아기에 대해서 조목 조목 상세하게 배우면서 그동안 은혜 받았던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믿음의 깊이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행복한 마음, 샘 솟는 기쁨, 달고 오묘한 말씀의 맛이 1과에서 10까지 하면서 내 마음에 알 수 없는 행복감이 넘칩니다.

그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별로 성경을 쓰지 않고 들었던 팔레스틴 지역들을 지도를 통해 알고부터는 목사님들이 말씀하실 때 지도가 그려지면서 지역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해룻 가문의 왕들을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또 약속 차트를 통해서서는 시험에 빠진 자, 병든 자, 죄책감에 억눌린 자 등들에게 해당되는 성경 구절에 대한 공부를 하므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한 내 이웃에게 제 목에 맞는 말씀으로 위로하며,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더 나아가 그들에게 말씀 카드를 보내 드리면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안에일꾼을 통해 배운 말씀을 앞으로 신앙 생활을 하면서 되새김질을 하면서 나는 더 낮아지고, 주님 이름을 높이고, 더 나타내고, 나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이웃에게 보여주는 삶이 되도록 예배, 말씀, 기도로 살아가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사라 집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감사의 눈물

지난 11주 동안 세퍼드라이프라는 교재를 가지고 주안에 일꾼 공부를 하였습니다. 마태복음을 토대로 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작게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하시기까지의 여정을 공부하였고, 크게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여정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조명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구하시려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발자취를 살펴보는 동안 지금까지 전혀 몰랐던 사실을 발견하고 놀라움과 충격에 휩싸이기도 하였고, 힘없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다니신 거친 광야와 험악하고 살기로 가득 찬 주변 상황, 그리고 그 상황을 헤쳐나가는 예수님의 여정, 그리고 뒤에서 때로는 자연 현상을 통해서, 정치인들과 국가들을 통해서, 또 적대자들까지도 사용하시며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왕국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세리 마태와 열심당원 시몬이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했다는 것입니다. 세리 마태는 침략자였던 로마 정부의 앞잡이로 동족들의 피를 짜내어 로마 정부에 바치고 사리사욕을 채웠던 사람이었고, 열심당원인 시몬은 로마 정부에 무력으로 저항하고 민족의 반역자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하였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자신들의 개인적인 생각과 목적을 포기하고, 인간적인 감정을 모두 버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원수까지도 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최 목사님께서 즐기치게 강조하시는 이해와 사랑, 겸손과 낮아짐, 배려와 포용에 대한 성경적 근거의 색다른 관점에서의 조명이었었고, 이 공부를 통해서 처음 깨닫게 된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왕

국에 대한 약속이 다윗 왕과 바벨론으로의 포로 생활을 거쳐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로 어떻게 지켜졌는지에 대한 과정도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둘러싼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연과 정치, 그리고 사람들과 정치인들을 사용하시고 움직이신 주권적인 섭리를 보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사랑과 은혜로 가득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주안에 일꾼을 공부한 지난 11주는 내 신앙에 아주 소중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더욱 이번 공부를 평소 존경하던 이방길 장로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외유내강(外柔內剛)형의 장로님께서 나직하지만 힘 있는 톤으로 성경공부의 맥을 세심히 짚어주고 이끌어주셨습니다. 바쁜 일정과 사업에도 플러튼까지 먼 거리를 오가시는 희생과 섬김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배웠습니다. 함께 공부하신 이 에스터 권사님, 김용기 집사님, 이분들의 고백과 간증, 그리고 교회에서 직접 보여주시는 봉사와 섬김은 그 자체로 내가 성경을 통해서 듣고 배운 것을 어떻게 실천하고 적용해 나가야 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본보기였습니다.

심자가에 달린 강도를 구원하시고, 그의 아름다운 고백을 성경에 기록하여 들어 쓰신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을 의지하고, 빛진 자의 심정으로 주안에 일꾼으로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내 자아, 부서지지 못하고 깨지지 못한 추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사용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은 갖겠습니다. 주안에 일꾼 공부를 위해 수고하신 분들에게 진심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공부를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성운 집사

주안에빛을 공부하며...



십자가 은혜, 하나님 사랑 놀라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바쁘다는 핑계와 게으른 생활태도로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읽지 않는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안에빛을 들으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각 주별로 성경의 주제로 잘 구분이 되어있어 교재와 강의하시는 부사역자님들의 진행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갈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1강 창조/ 족장시대의 내용들을 구속사적 은혜로 잘 풀어서 설명을 잘해주셔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져서 좀 짝한 감정을 느낌과 동시에 많은 찢림의 감정도 느꼈습니다. 2강 출애굽 광야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어 주시고 관계를 중요시 하셔서 관계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소그룹으로 나누어 각자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에 대해 SHARING을 나눌 수 있었던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3강 가나안 정복 / 사사시대를 통해 반복되는 사사시대의 패턴을 통해 저의 삶을 되돌아 볼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5강 분열 왕국을 통해 저의 행동과 모습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 믿음 생활에 모범을 보였는지 신앙의 이중성은 없었는지 곰곰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10강 교회시대를 통해서 현재 최혁 목사님의 영성집회 사도행전 말씀이 함께 생각이 나 강의의 이해보다는 그 상황을 좀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도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경로들을 자세히 살펴 보면서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 어느시기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쓰게 되었는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이시니라”는 말씀이 있음에도 매일 매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매일 매일 갖지 못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제 스스로 매일 매일 할 수 없기에 교회에서 받을 수 있는 교육에 저 자신을 묶어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보게 되고 그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에 받을 수 있는 교육은 계속해서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반복되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좀 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소망하게 됩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길 바랍니다. 지쳐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현웅 집사

소망이 넘치는 주안에 공동체

“주안에 빛” 과정을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경 말씀의 개요를 12주의 과정을 통해 전체적으로 살펴 보면서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가는 보람된 시간이었으며, 짧은 시간 빠르게 진행되어 아쉬움이 있긴 하였지만 오히려 나태해지지 않게 하였고, 말씀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바라보게 하여 앞으로 말씀을 읽을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무엇보다 여러 사역자들과 만남을 통해 그분들과 조금 더 가까워지고 열정을 느끼는 모습을 보는 좋은 시간이었으며,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가르쳐 주시고 쉽게 설명하려고 힘을 다하는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았다. 가르치시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젊기에 활력도 있고 신선하며, 우리 주안에교회 공동체에 소망이 넘치는 것 같았다. 다음 시간 가르치는 분은 어떻게 말씀을 풀며 가르칠까 은근히 기대도 하게 되었다.

평소에도 가르치며 말씀을 전하는 리더들을 위한 기도가 나를 위한 가장 이기적인 기도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이 과정을 통해 우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을 위해 더 기도해야겠다는 부담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하나님께서 택한 주의 종들에게 학자처럼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소감문을 쓰는 이 순간도 기도한다.

이 과정을 공부하며 무엇보다 계시록의 말씀을 가까이 보게 되었다. 평소 계시록의 말씀을 대할 때 일곱 교회를 향한 메시지 외에는 잘 이해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앞서 특별히 관심을 쏟지 않았는데, 이 과정을 통해 배우며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이 책을 종말의 심판의 관점으로만 느꼈는데 “축복을 담고 있는 책”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보게 되었다. 계시록에 담겨 있는 일곱 개의 다른 축복들을 생각하며 늘 묵상하고자 마음에 이 말씀들을 담고자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주안에서 죽는 자, 자기의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 어린양의 초청에 청함을 받은 자, 첫째 부활에 참여 하는 자, 생명나무를 취할 권리를 가지며 문들을 통해 도성으로 들어가려고 자기 옷을 빼는 자.” 아멘! 주님! 제가 그런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힘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있던 순간,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고 그 말씀에 이끌려 주안에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게 하신 주님께서 하나하나 더 배우는 과정을 통해 하실 주님의 일들을 기대합니다.



박만규 집사



■ 봉사국(LA채플)

묵묵히, 소리 안나게 성도들에게 기쁨을

대부분의 봉사활동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 될 때는 구성원들이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 봉사활동의 중요성이나 의미를 모르지만 문제가 생겨 중단 되거나 활동이 완전히 못하면 그때에야 아쉬워하고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이런면에서 볼 때 LA채플의 봉사국은 국장과 팀장 팀원들이 전혀 말이 없이 매끄러운 업무 처리로 인하여 어느 분이 담당자인지도 모를 정도로 모범적인 봉사국을 운영하고 있다.

LA채플 봉사국은 국장에 이춘희 집사, 팀장에 문성훈 집사 그리고 팀원으로 구신옥 집사, 박병선 집사가 수고하고 있다. LA채플 봉사국은 현 LA채플이 금년 1월 LA예배처 소로 출발 할 당시 스푼 한 개 밥술 하나 없고 취사 시설이나 부엌 설비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지만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들이 어떻게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어려운 임무를 맡고 시작되었다. 그렇게 쉽지 않은 조건에서도 주님에 대한 믿음과 성실한 추진력으로 많지 않은 인원으로 매주 좋은 점심 식사와 목요 찬양예배 때에 간식을 준비 하는 등 너무나 고마운 봉사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그 당시 어렵사리 구한 간이 테이블과 천막들을 파킹랏 한 쪽에 설치하고 교인의 반 정도는 서서 반은 의자에 앉아서 점심 식사를 했지만 음식 맛은 정말 꿀맛이었다.

처음 LA예배처소가 시작 될 때는 식사 인원이 100명 정도였는데 지난 4월부터 LA 월



서 블러버드와 놀만디 애비뉴 코너로 이전하여 LA 채플이 설치 된 현재는 200명 출석 인원의 식사를 준비해야 한다.

그렇지만 봉사국의 인원은 변함이 없지만 지금도 멋진 봉사를 계속하고 있다. 다행히 매주 식사 준비와 배식은 자원 봉사자들이 있어 도우므로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한다.

가끔 본 기자가 “이춘희 집사님 너무 수고하셔서 몸살 나시겠어요” 하고 물으면 “벌써 몸살 났어요, 그렇지만 견딜만 합니다. 하나님 일인걸요” 하고 웃으신다. 팀장 문성훈 집사님과 팀원 박병선 집사님은 개인 사업을 운영하며 주중 바쁜 시간을 보내지만 주일 식사 준비와 재료 구입에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더욱이 LA채플이 밸리채플과 플러튼채플의 중간 지점이라 3개 채플 합동 행사나 미팅이 LA채플에서 자주 있게 되는데 그때마다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다.

국장 이춘희 집사님과 팀장 문성훈 집사님, 박병선 집사님 모두 믿음 좋기로 정평이

나있는 분들이지만 한 주일 만이라도 빠지게 되면 교인들이 배고파하는 중요한 부서라 늘 긴장하고 육체적으로도 힘든 업무임에도 불평이나 어떤 잡음도 없이 묵묵히 봉사하시는 모습에 주의 사랑을 느끼며 감사하게 된다.

이춘희 국장님은 매주 준비한 음식을 교인들이 맛있게 드시고 감사하다는 말을 할 때 피로가 싹 풀리게 되며 주의 일을 하는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주가 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더욱이 주일 음식을 준비 할 때 외부에서 케이터링 하는 것 외에는 모든 비용을 봉사국에서 자체 조달한다고 한다.

아름다운 봉사를 받는 우리들은 봉사국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로 늘 보답하고 음식을 대할 때마다 감사를 표하며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물질적인 협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여겨진다.

| 나형철 기자 |

성경퍼즐
정답

<2월호>

누			장		담		네
가	상	칠	언		보	아	너
	아						구
곤	궁	하	다		데	나	리
비		갈	보	리	메	로	아
	릴		신		리		비
보	리		다	리	오	야	곰
좌				노			사

2월호 당첨자: 김신실, 김준교, 김지연, 박경원, 이도훈, 이용화, 이지혜, 정용재, 정유정, 황영옥

사업체 광고를 실어드립니다

성도님들의 사업에 도움을 드리고 교우 상호간 서로 돕기를 실천하자는 취지에서 사업체 광고란을 마련했습니다. 광고비는 6개월 단위 \$150이며 광고수익은 선교 구제헌금으로 사용됩니다. 문의: (323) 810-9853, icccnews123@gmail.com

UCOME AUTO SALES
새 차 • 중고 차 • 매 매 • 리 스 • 좋은 보험 소개
자동차를 싸게 사실 수 있는
One Stop Shopping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박선우 / Paul Park
Cell: (213) 880-1267
p1267w@hanmail.net

AYCE GOGI
KOREAN BBQ
〈구 덕수장〉
7128 Van Nuys Blvd
Van Nuys, CA 91405
818-465-3050

■ 건물시설관리국(플러튼채플)

아름답게 단장된 성전, 숨은 봉사자들의 헌신이

하나님께서서는 주안에교회가 Fullerton의 다운타운 한 복판에 세워진 아름다운 교회건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셨습니다. 지난 연말 건물을 구입하고, 1월 첫 주에 감격적인 첫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안에교회가 세워지고 Fullerton 채플의 5백 여 교우들이 셋방살이를 한 지 2년 여 만의 일입니다. 물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가까지는 많은 분들의 헌신과 눈물과 땀 흘림이 있었습니다.

특히 건물시설관리국의 일원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시간과 물질과 노력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올려드린 분들의 수고는 이루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의 헌신을 이렇게 지면으로 세상에 알리는 것에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은 모두 주님의 말씀대로 ‘오른 손이 하는 일을 왼 손이 모르게(마6:3)’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가 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본받고 나누어야 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문서국을 통해 이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고 간담히 적습니다.

먼저는 윤종화 장로님입니다. 뽕리에서 노구를 이끄시고 매일 Fullerton으로 출퇴근 하시며 백 년이 넘는 건물을 고치고 단장하는 일에 솔선수범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의 중지를 모으고, 봉사의 손길들을 적적적소에 배치하며, 자비를 털어 필요한 자재들을 사 나르시고, 또



일꾼들의 식사대접까지 도맡아 주셨습니다. 송다니엘 집사님은 한국인 General Contractor로서는 올드 타이머의 한 분이십니다. 그동안의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시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는 일을 주도적으로 해주셨습니다. 특히 Fullerton 채플은 1908년에 세워진 역사적 건물로 연방정부에 보호 건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라도 고치고 개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것을 정부 관리국(Historic Building Conservatory Committee)과 시와 정부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일을 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이신 이인범 장로님과 김영일 장로님, 김영기 장로님, 이형국 집사님, 이영진 집사님, 김지태 집사님, 박상욱 집사님, 뽕리 채플의 이종희 집사님 등등은 Fullerton 채플을 세우는 데 헌신하신 수많은 분들 가운데 꼭 거명해야 하는 자타가 인정하는 헌신자들이십니다. 거대한 냉장고를 지하 부엌에 나르는 난공사, 수 천불 드는 공사를 자신의 돈으로 재료를

를 사고 직접 공구들을 빌려다가 공사하신 분, 며칠 밤을 새워가며 공사기일을 맞추려고 일하신 장로님과 집사님들, 아예 본업을 뒤로하고 Fullerton 채플로 몇 달을 출퇴근하신 분, 음향 시설, 에어컨 설치 및 수리, 교회 안팎의 환경미화와 청소, 그리고 이 분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기 위해 애쓰신 주방의 손길까지 눈물겨운 이야기들이 벌써 전설이 되어 주안에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교회 건물이 너무 오래되어 여기저기 손볼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지만 건물을 원형 그대로 유지하려는 정부 당국의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국장이신 이인범 장로님께서서는 인터뷰 내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경탄과 감사를 연발하셨습니다. “많은 손길을 적소에 적시로 보내주시고, 일견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일들이 은혜롭게 처리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평생 간증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해야 할 일들이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처럼 앞에 놓여있지만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함락시키셔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Fullerton 채플 공사에 헌신하신 손길들에 국장으로, 교인의 한 사람으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인범 국장님이하 건물시설관리국 대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 조성운 기자 |

■ 소그룹 모임을 위한 쿠킹 아이디어

매운낙지볶음을 보리밥이나 현미밥, 김치와 상추쌈과 함께 상에 올리면 한 여름 점심이나 저녁의 감칠 맛나는 식탁이 된다.

재 료 (4-6인분) 낙지 4 마리, 양배추 ½ 개 (중간 크기), 양파 1 개 (중간 크기), 당근 1 개 (중간 크기), 파 ½ 단, 소금 3 큰술, 다진마늘 1 큰술, 고춧가루 2 큰술, 고춧기름 ½ 컵, 물엿 2 큰술, 전분 1/3 큰술, 참기름 2 큰술

*양념장: 고춧가루 1 cup, 고춧장 1 큰술, 된장 1 작은술, 간장 ½ 컵, 포도주 2 큰술, 후추가루 1 작은술, 배즙이나 파인애플즙 1 ½ 컵, 꿀 1 큰술

조 리 법 1. 냉동된 낙지는 찬물에 담구어 20

Stir-fried Spicy Octopus

매운 낙지볶음

분간 해동 시킨다.

2. 해동된 낙지를 건져 소금 3 큰술을 넣고 2분 30초동안 주물러 해감을 뺀 후 깨끗한 물이나 울 때까지 행군다.

3. 위의 낙지를 20분 동안 체에 발쳐 물기를 뺀 후 길게 썰어 준비한다.



4. 양배추, 양파, 파, 당근을 채썰어 준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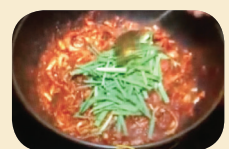
5. 팬에 채썬 양배추, 양파, 당근, 파를 깔고 준비된 낙지, 양념



장, 다진마늘, 고춧가루, 물엿, 고춧기름을 올린 후 센 불로 2~3분 동안 볶는다.

6. 전분과 참기름을 넣고 2-3분간 더 볶으면 완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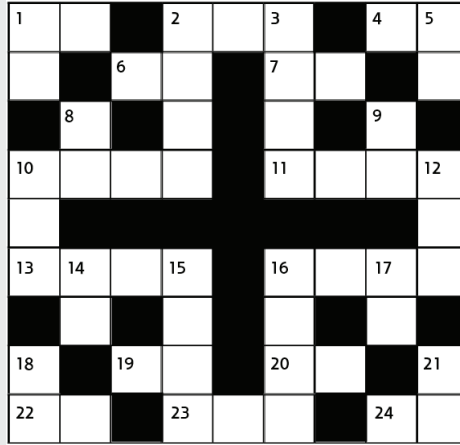
7. 양념의 양은 기호, 식성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박창신 기자

주안에 성경퍼즐

〈가로 문제〉 1. 성결한 생애를 하나님께 약속하는 표시로 한 흙의 밀가루를 기름과 유향을 불태우고 떡을 구워 놓고 드린 제사(출 29:41)
2.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무대(눅 10:30)
4.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의 책(고후 3:14)
6. 무슨 뜻을 나타내기 위한 표(출 13:9)
7. 아이를 낳을 때 산모를 구호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창 35:17)
10. 힐기야의 아들로 히스기야 왕 때의 궁내대신(왕하 18:18)
11. 하도 수가 많아서 셀 수가 없음(대하 12:3)
13. 참된 신앙이란 그 결과가 생활 속에 경건과 선한 생활을 영위하여야 함을 보여주는데 목적이 있다는 신약 20권째의 성경
16. 모세의 수종자가 되어 항상 회막 곁에 있었던 사사며, 가나안에 보냈던 12정탐꾼중 한 사람(출 33:11)
19. 야곱의 첩으로 단과 납달리의 어머니이며 야곱의 장자 르우벤이 간통하였음(창 29:29)
20. 팔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산 사람(창 25:20-34)이며, 압박강가에서 천사와 싸움하여 이기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음(창 32:22-28)
22. 겁이 없고 용기가 대단함(출 14:8)
23. 서로 옳고 그름을 주장하여 싸움(창 13:7)
24. 이스라엘 왕으로 부친은 아합, 모친은 이세벨(왕하 9:24)



〈세로 문제〉 1. 바라거나 원하는 일(창 4:7)
2. 본명은 엘리야김으로 유다왕 여호아하스를 바로노가 애굽으로 잡아가고 대신 추대(왕하 23:31-36)
3. 앗수르왕 사르곤 2세가 이스라엘 초로를 이곳에 옮겼다(왕하 17:6, 18:11)
5. 장래의 일에 대해 상대자와 서로 결정해 둠(마 20:2)
8. 나라를 다스림(창 41:33)
9. 온몸에 털이 있으며 네발 달린 동물을 지칭(창 12:4)
10. 북왕국 아합왕과 아하시야 시대에 걸쳐 사역한 이스라엘의 예언자 중 가장 무서운 예언자(왕상 17:1)
12. 솔로몬 왕 말년까지 복속하였고 솔로몬 왕

말년 소바왕 르손이 이탈하여 독립(왕상 11:23-25)
14.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함(행 24:14)
15. 몹시 선선하다(창 3:8)
16. 브나야의 부친(삼하 8:18)
17. 엘리사 선지자를 잘 대접한 여인의 거주지(왕하 4:8-37)
18.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첫 사람(창 1:26)
21. 다윗 왕과 솔로몬과 가장 절친한 교제를 하였던 두로왕(삼하 5:11-12, 왕상 9:14) <출처: <http://blog.daum.net/limbible/>>
■ 정답을 오려서 이름을 적어 교회 사무실이나 교역자분께 제출해주세요. 다 맞추신 분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정답은 다음 호에)

가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크리스찬 선물센터 기독교 종합백화점
성약, 성구약재, 크리스탈강대상, 성경대·독서개운, Tape, CD

대표 강 병 찬
TEL: (323)737-7699, (323)737-4526
FAX: (323)733-8850
Toll Free: (800)669-0451
인터넷 쇼핑몰: www.koramdeo.com
E-mail: cbc0191@hotmail.com
영업시간 9:30AM~7:00PM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이 사 라
Suk Lee
US 9636650
Franchise Consultant

NU SKIN.
THE DIFFERENCE DEMONSTRATED.

PHARMANEX™
A Natural Healthcare Company

3700 Wilshire Blvd. #265 LA CA
Cell : 818.648.1224

예배시간 및 교회 위치 안내

주일
예배

밸리채플/ 1부 오전 8:45, 2부 11:45
LA채플/ 1부 오전 8:45, 2부 10:30
플러튼채플/ 1부 오전 9:00, 2부 11:00

영성
집회

수요영성집회/ 저녁 7:45 플러튼채플
목요코람데오예배/ 저녁 7:15 LA채플
금요영성집회/ 저녁 7:45 밸리채플

새벽
예배

밸리채플/ 새벽 5:30(월-금), 6:00(토)
LA채플/ 새벽 5:30(월-금)
플러튼채플/ 새벽 5:30(월-금), 6:00(토)

밸리채플 Valley Chapel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LA채플 LA Chapel

3460 Wilshire Blvd. Ste 700, Los Angeles, CA 90010

플러튼채플 Fullerton Chapel

117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2

담임목사 설교방송 안내

■ 크리스천 헤럴드TV(CH 18.88

본방송: 매주(화) 7:00pm~7:45pm

재방송: 매주(토) 9:30am~10:15am

■ CTS 기독교TV방송(directv 2092)

본방송: 매주(월) 7:45pm~8:30pm

재방송: 매주(토) 1:00pm~1:45pm

■ 라디오서울(AM 1650) 매주 목 11:00~11:30pm

“주안에” 2016년
6월호 원고 모집

‘주안에’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우리교회 뉴스레터입니다. 교구, 구역,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iccn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교회 문서사역국

문서사역국 명단: 이광영(국장), 김산실, 나형철, 박창신, 박희정, 안경숙, 안덕문, 오병순, 오희경, 이하나, 조성준, 조용대, 채은영, (7자)

안동윤, 브라이언 조, 정인성, 김다솔 (사진) | 편집디자인: 김윤영